

<문제1>

제시문[가][나][다]에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가 드러나 있다. 제시문[가]와 제시문[다]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드러나고 제시문[나]에서는 고릴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세 제시문 모두 자신과 같은 종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제시문[가]와 제시문[다]에는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드러난다. 인간은 다른 종들과 달리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매장 방식으로도 사체를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체 처리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제시문[가]에 나타난 인간이 사체를 매장하는 이유는 인간 존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죽음과 삶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으며 매장을 통해 죽음과 삶을 연결시키려 한다. 반면, 제시문[다]에 나타난 인간이 사체를 매장하는 이유는 죽은 뒤의 아름다워지 못한 모습을 숨기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죽음은 삶과 분리되며 회피와 공포의 대상이다. 이처럼 제시문[가]와 제시문[다]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매장의 이유에도 차이가 있다.

제시문[나]는 [가][다]와 달리 죽음에 대한 고릴라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불가능하고 매장 또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릴라들은 고릴라의 죽음에 대해 회피하지 않으며 무시하지도 않는다. 비록 죽은 고릴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은 알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고릴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고릴라에게서 움직임과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도 보인다. 즉, 죽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가 있지만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인간과 공통적이다.

<문제2>

실험1과 실험2 모두 배설물과 관련된 실험 집단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더 적게 했다. 그러므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제한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제시문[가]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실험 결과의 원인은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인간의 본능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배설은 모든 생명의 특징이자 본능이다. 마찬가지로 배설에 관하여 인간 또한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이다. 그러므로 본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휘되던 인간만의 특수한 능력은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발휘되기 힘들다. 즉, 죽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인간이 본능이 강화된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죽음을 쉽게 연상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제시문[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실험 결과의 원인은 역설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오히려 죽음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은 추한 것과 연결되고 [다]의 인간들이 인식하는 죽음 또한 추한 것과 연결되므로 결과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은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피하려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죽음이 연상됨과 동시에 회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설물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제한시킨 것이다.

나는 제시문[다]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배설물을 통해 떠오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인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다]에 나타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은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